신선식품 20% 급등 '추석물가' 비상

무·마늘 2배↑…농산물값 폭등세

정부, 오늘 물가불안 해소책 발표

잦은 비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추석을 앞두고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불안 해소대책을 2일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물가는 채소 등 농수축산물이 크게 오르면서 신선식품지수가 전년보다 20.4%나 상승했다.

무와 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신선채소의 상승률이 25.7%에 달했으며 과실류도 19.2%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가 103.1%, 마늘이 96.5% 증가한 것을 비롯해 수박(72.0%), 참외(59.7%), 시금치(53.4%), 고구마(48.0%), 오이(47.6%), 열무(45.7%)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 북어채(31.4), 부엌용 용구(24.5), 오징어채(24.2), 연탄(22.6%), 자동차용 LPG(17.0%) 등 공업제품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전남지역 물가도 농축수산물(10.6%)을 중심으로 신선식품지수가 19.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무(123.3%), 마늘(110.2%), 포도(67.9%), 수박(64.9%), 오이(56.4%), 배추(56.1%), 복숭아(50.4%), 조기(45.2%) 등 농수산물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급등하면서 지난 7월 우리나라 식품물가 상승률도 4.7%나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물가대책에는 품목별로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문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비축분 조기 방출과 수입 물량 조기 도입 등 농·수산물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요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인상을 최소화하고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젠 가을옷 준비하세요" 1일 광주신세계백화점은 패션의 계절 가을을 맞아 5층 여성매장에서 올 가을 유행할 의류를 선보였다. 올 가을에는 트렌치코트를 비롯해 호피무늬 등 화려한 패턴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수완지구 국민임대 LH 1215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수완7단지에 국민임대 아파트 1215가구를 공급한다. 〈조감도〉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39㎡(18평) 590가구, 46㎡(21평) 625가구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9㎡형이 1600만원에 9만3000원, 46㎡형이 2100만원에 11만8000원으로, 시중 전세가의 65~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5월이며, 신혼부부에게 365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9일 이틀간 LH 광주전남본부에서 순위별로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 계약 체결일은 다음달 13~15일이다.

문의는 LH 광주전남본부 고객상담실(062-380-0400~1)이나 보금자리주택 홍보관(062-380-0408)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수용품 싸게 사려면 직거래장터 이용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곳곳에서 마련된다.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구 금호동 마재근린공원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서창농협 등 9개 농업인 단체에서 과일, 한과, 수산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30여개 품목을 시중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남도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서구 치평동 SC제일은행 앞 노변광장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사과, 굴비, 더덕, 멸치·새우 세트 등 주요 인기품목을 100여개 품목을 10~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현장판매와 함께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www.invil.com)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한다. 또 20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 G마켓과 함께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도 14~17일까지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센터 앞 광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연다. 농협은 이번 장터에서 배, 사과, 단감 등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추석자금 6조2000억 푼다"

국내 은행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6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산업은행과 농협 등 7개 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으로 모두 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조8000억원보다 약 23% 증가한 금액이다.

국민은행은 협력업체 결제자금과 직원 급여 및 상여금 용도로 지난해에 이어 1조원을 풀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추석지원 자금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린 뒤 업체별로 최고 5억원 범위에서 대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5000억원을 배정했으며 대출금리는 0.1~2.4%포인트 할인해 적용한다.

국책은행들도 지원한도를 늘려 잡았다. 산업은행은 오는 10월22일까지 모두 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도 기존 대출보다 0.50%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조원을 대출했다.

기업은행도 원자재 결제자금과 임직원 임금, 상여금 지급 등의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3억원까지 모두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 신규 추석자금을 작년의 3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1조원의 자금은 만기를 연장해줄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추석자금 기존금리 대비 최대 1.3%포인트까지 할인해준다.

/연합뉴스

우체국도 스마트폰 뱅킹 예금 조회·자금 이체 등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폰에서 폰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S뱅킹'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체국S뱅킹'은 우체국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센터 등 각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규 고객은 우체국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이동·복사해 사용하면 된다.

'우체국S뱅킹'은 예금조회와 자금이체, 주가와 환율 조회, CD·ATM기기와 우체국 위치안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S뱅킹' 서비스는 아이폰과 윈도 모바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가능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방경기 상승세…건설업은 부진"

호남 제조업 생산 15%↑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일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자료에서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영상·통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활기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방 제조업 생산 증가율(작년 동기 대비)은 올해 1분기 27.6%, 2분기 20.6%, 7월 16.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분기 지역별 생산 증가율은 인천·경기(28.2%), 대전·충청(20.6%), 광주·전라(15.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제주는 -1.4%로 부진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올해 1분기 93에서 2분기 99, 7월 97로 기준치 100에 근접했다.

설비투자 BSI는 작년 4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 101, 2분기 103, 7월 104로 상승했고 수출 증가율은 2분기 30.5%, 7월 27.8%로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폭은 1분기 8만8000명에서 2분기 15만4000명, 7월 20만9000명으로 커졌다. 전통 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의 취업자 감소 폭은 같은 기간 8만9000명에서 7만3000명, 1만1000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1분기 -6.4%에서 2분기 -9.3%로 감소율이 커졌고 건설업 업황 BSI는 2분기 70, 7월 74에 머물러 건설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했다.

한편 8월 중 광주·전남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는 전달에 비해 위축됐으나 9월 전망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533개 기업을 대상으로 '8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를 한 결과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8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수출(112→97), 생산(110→106), 신규수주(101→99) 등의 감소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조업 매출 BSI도 전달의 106에서 101로 5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설비투자BSI(104→107)와 채산성BSI(86→89)는 전달보다 각 3포인트 상승했다.

9월 제조업의 업황전망BSI(94→95)는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매출전망BSI(106→109), 생산전망BSI(108→109), 신규수주전망BSI(99→103), 가동률전망BSI(103→106) 등은 소폭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PG 공급가격 대폭 인하

kg당 990원대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9월 충전소 공급가격이 지난달에 이어 큰 폭으로 내렸다.

LPG 수입 · 판매사인 SK가스는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9월 가격을 kg 기준으로 81.48원(7.56%) 내린 995.92원으로 책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차량용 부탄가스의 값은 kg당 70원(4.79%) 인하한 1,389.3원(ℓ 당 811.35원)으로 정했다.

E1도 가정용 프로판 가스의 9월 충전소 공급가격을 kg당 81원(7.53%) 내린 994.4원으로, 차량용 부탄가스의 값을 kg당 70원(4.80%) 내린 1,388.9원(ℓ 당 811.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프로판 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이 kg 기준으로 1000원 이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E1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